

무지 앞에 좌절한 비운의 결핵인

## 백남포(白南浦)

글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 스트렙토마이신으로 극적 회생

“구포에 집단 소요- 결핵요양원이 싫다  
고 부락민이 쇠도”(부산일보 1957년 12월  
30일자) “요양원을 습격파괴- 인근 사람  
들이 결핵 번진다고”(조선일보 1960년 9  
월 25일자)

현장 사진과 함께 보도된 위 두 신문의  
커다란 기사 제목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  
설요양원 백양원(白羊園)이 겪은 생생한  
수난의 실상을 웅변해주고 있다.

백양원의 설립자 백남포는 일제 말인  
1942년 김해읍사무소 서기로 근무하던  
22세 때 결핵을 앓기 시작했는데, 중일전  
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전시 총동원령이 내  
려지고 물자와 식량이 궁핍하던 어려웠던  
시기로 결핵은 불치병으로 인식되었던 시  
대였다.

직장을 그만두고 휴양을 하면서 주위에  
서 원하는 민간요법도 해보고 한약도 먹었  
으나 병은 악화되지만 했고, 8.15광복 후  
에도 그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1947  
년 28세 때 아는 이의 소개로 전 해에 새로  
문을 연 국립마산요양원을 찾았으나 왼쪽

폐가 거의 망가져서 치료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울며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얼마 후 그는 사흘동안 대 각혈을 하고  
혼수상태에 빠져 목사의 임종예배까지 받  
았으나, 칠순 노모의 헌신적인 간호로 고  
비를 넘길 수 있었고 노모와 함께 약 8개  
월간 산중 요양을 하다가 생계를 위해 쇠  
약한 몸을 이끌고 밀양읍으로 내려와 대  
서방을 차렸다.

이 때 국민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동생이 과로로 급성결핵이 진행하여 발병  
6개월만에 죽고 말았다. 임종 때 그는 동  
생과 피맺힌 약속을 했다. “나는 안 죽겠  
다”고. 그러나 뒤이어 집안 살림을 꾸려가  
던 아내마저 결핵으로 쓰러졌다.

아내가 남기고 간 자식들을 돌보라, 요  
양생활을 지속하라, 생계도 이어가라, 당  
시 그의 심정은 사형수의 심정파도 같았  
다고 했다.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그가 31  
세 때, 새로 나온 결핵특효약이라고 한 병  
에 쌀 몇 가마니 값을 하던 스트렙토마이  
신 10병을 구한 그는 그 약의 사용으로 경



1. 만덕리 언덕에 아름답게  
건립된 백양원 전경 2. 따로  
세워진 의무동 3. 병동 전경  
4. 병동 내부의 복도 5. 소  
유가 일어난 현장 주인이 울  
러와서 축대를 부수자 경찰  
들이 진압하고 있다.

이적인 효과를 보았다. 아마 그 때는 약의 내성도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더욱 효과가 컸을 것이다.

### 사재와 여생을 결핵사업에

그는 끝내 “죽지 않겠다”는 동생과의 약속을 지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으며, 그 후 소규모로 손 댄 사업에 성공하여 재력이 생기자 사재와 여생을 결핵환자를 위해 바칠 것을 결심하고 결핵요양원 설립의 꿈을 곧 실천에 옮겼다.

그가 37세 때인 1957년 10월 경남 동래군 구포읍 만덕리(東萊郡 龜浦邑 萬德里) 중턱에 있는 아산 1만 7천 평을 매입하고 당국의 설립허가를 받아 그곳에 1차로 병동, 의무동 등 건평 117평에 입원실 10개, 수용인원 20명 규모의 사설결핵요양원을 부지대금을 포함한 총공사비 천만 원을 들여 짓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3년여에 걸친 처절한 6.25 동란으로 막심한 파괴와 인명피해, 수백만의 피난민이 발생했고 열악한 주거 환경과 영양실조와 궁핍은 필연적으로 결핵의 만연을 초래했다. 또한 빈약한 국가 재정으로 전후복구에 허덕이며 외국원조에 의존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늘어나는 결핵환자를 수용 치료하는 시설을 제대로 갖출 형편이 못되었다.

국립마산요양소에는 항상 수백 명의 입원대기환자가 밀려있는 상태였으므로 결핵 병상수를 늘리는 것이 초미의 급선무였다.

이런 상황에서 백남포는 사재를 바쳐 사설요양원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결핵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의 가욕한 사랑과 희생정신은 정부 당국은 물론 결핵협회와 언론으로부터도 찬사를 받았다. 그것은 또한 우리나라 사설요양원의 가능성을 여

는 꽤저이기도 했다.

### 부락민의 집단폭력과 소요

그런데 1957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곱 차례나 부락 주민들이 90%정도 공사가 진행된 현장에 몰려와 파고 있던 우물을 돌로 메우고, 축단을 파괴하고, 공사 도구를 탈취하고, 돌팔매질을 해 공사중인 인부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리며 폭력적으로 요양원 설립 저지에 나섰다.

이렇게 주민 난동이 발생한 원인은 그해 10월 30일자로 중리(中里)의 김갑식(金甲植)이 주동이 되어 주민 2백 12명 연명으로, 백양원이 설치되면 1)결핵환자들이 버리는 오물로 인해 부락민에게 전염될 우려가 크다 2)자연수를 마시고 있는 이 부락 주민은 상류지대인 요양소에서 흐르는 물을 먹을 수 없다 3)요양소 건립은 일개 개인의 영리사업이다 4)그리고 당국에서는 이 개인과 암암리에 흑막이라도 있는 듯이 개인 편을 든다, 는 이유를 들어 반대 진정서를 보건사회부장관·전남도지사·동래군수·동래경찰서장 앞으로 제출했으나, 보건당국과 경찰에서는 여러 차례 현지답사와 조사를 마친 후 동래군수 명의로 1)요양소로부터 인근부락인 중리(中里)와는 800m, 하리(下里)와는 1km나 되는 거리가 있으므로 부락민에 대한 전염(공기전염)의 우려가 없고 상류에서 따로 사용수(使用水)를 끌어오고 그 사용

된 물은 요양원 경지 내에서 저수하거나 처리 할 것이며 2)중리(中里)와 하리(下里)를 연결하는 도로는 변경할 것이고 3)도리어 구포읍 전체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되니 부락민은 이에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진정인과 구포읍장, 백양원 대표 백남포에게 회답한 것이 발단이였다.

즉 이것을 당국자와 요양원 설립자 사이에 무슨 흑막이 있어 자신들의 주장이 묵살된 것으로 오해한 무지한 주민들이 집단으로 몰려와 폭력으로 백양원을 파괴하는 소요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는 주민의 반대소요로 거의 준공단계의 공사를 중단하고 사태를 관망하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1959년 3월 어떤 젊은 친구의 소개로 부산 서독병원이 본국으로 철수하는 기회에 요양원에 필요한 의료시설의 일부를 기증받아 어느 정도 시설까지 준비된 상태에서 백남포는 부락 최고지도자를 만나 다시 한 번 요양원 건립을 시도했으나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부락민들의 소요가 다시 발생, 지방도로에 가설된 가교를 끊어버리고 요양원 입구에 초소까지 세워 출입자를 감시했다.

### 강요된 요양원 포기 각서

계속되는 부락민들의 소요와 거센 반대로 마침내 1959년 4월 백남포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참담한 마음으로 부락 대표들과 읍장, 지서주임이 정식 입회한 가

운데 1)요양소를 포기한다 2)가축장 혹은 다른 사업에 전용되는 종업원의 명목으로 다소를 막론 결핵환자를 고용 못한다 3)당국의 인가 유무를 막론하고 결핵환자를 수용할 때는 무조건 건물 전부를 파괴해도 좋다 4)건물 또는 임야를 타인에게 매도 혹은 양도할 때는 동민대표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각서는 동민대표와 동행으로 지방행정관청의 확인을 받는다 6)각서의 취지를 서울신문과 국제신보에 즉시 공고한다 7)본 각서는 영구적이다 8)4항 5항을 이행한 연후라야 나머지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의 요양원 포기 각서를 조인하게 되었다.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각서를 쓴 다음에야 나머지 공사에 착수, 요양원은 후에 형편이 되면 다른 곳에 다시 짓기로 하고 이곳을 회복자의 사회복귀 적응을 위한 백양원 만덕리 요후보호소(萬德里 療後保護所)로 만들고 구포읍 내에 결핵진료소를, 부산시내에는 엑스선과를 두기로 했다.

1959년 5월 국회의 정준(鄭濬)의원, 조일재(趙一載)의원, 경남지사 대리와 결핵협회 임직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침내 요후보호소의 낙성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부락민들은 요후보호소 역시 요양원이나 마찬가지로 판단, 또 다시 소동을 일으켜 낙성식은 수라장이 되었다.

또한 1960년 9월 23일에는 반대주동자인 김갑식이 요양원 앞을 지나가면서 백

남포의 욕설을 했는데 마침 동래고등학교에 다니던 백남포의 장남 백철기(白哲基, 18세)가 듣고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하자 김씨가 마을에 돌아가 주민들을 선동, 인근 부락주민 50여 명이 집단 습격해 건물을 완전 파괴하고 철기군에게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도 발생했는데 급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습되었다.

결국 주민들의 무지와 폭력으로 결핵환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이룩하려고 발버둥치던 한 결핵 독지가의 신념과 선의는 이렇게 무참히 좌절되고 말았다.

백남포는 대서방을 할 만큼 글씨를 잘 쓰고 투병기 “봄은 다시 온다”를 출판할 만큼 문장력도 좋은 사람이었다. 부락민의 난동과 방해에 맞서면서 “그 불 끄지 마소서”란 제목으로 보건세계에 기고한 그의 처절한 절규는 모든 독자의 심금을 울렸다.

눈물을 삼키며 그곳을 떠나야 했던 그는 1962년 주위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결핵협회의 관훈동시법관리소 일을 돕기도 했는데 그후 소식이 끊겼다. 물론 그의 생사도 알 수가 없는데, 생존해 있다면 올해 83세의 나이이다.

그가 모든 것을 바쳐 백양원을 설립했던 구포 만덕리 산 중턱엔 무지라는 시대의 역풍을 만나 좌절하고만 한 결핵인의 비원을 묻어 둔 채 지금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卍